

친환경차 인기 가속도...하이브리드 대세



친환경차 올 1~10월 13만대 판매...지난해보다 50% 증가
하이브리드 9만7905대...현대차 그랜저 3만 2128대 1위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위)와 기아차 쏠렌토 하이브리드.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친환경차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친환경차 국내 판매가 벌써 13만대에 육박하는 등 지난해보다 50% 상당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친환경차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친환경차 중에서도 전기차나 수소차에 비해 하이브리드차(HEV)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브리드 최고 인기 모델은 현대차의 그랜저로 2위는 기아차의 쏠렌토가 차지했다.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한 친환경차는 총 12만8106대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만7359대에 비해 46.6% 증가한 것은 물론, 작년 연간 친환경차 판매량 11만219대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친환경차의 인기는 하이브리드차를 필두로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9만7905대가 팔리면서 지난해 5만9105대보다 무려 65.6%나 늘었다.

또 수소전기차는 5088대가 팔리면서 전년 대비 58.7% 증가했고, 반면 전기차(EV)는 0.2% 증가한 2만5113대에 그쳤다.

친환경차 판매 비율로만 따지면 하이브리드차가 76.4%를 차지했고, 이어 전기차가 19.6%, 수소전기차가 3.9% 순이었다.

이처럼 올해 3분기만에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서면서 작년 처음 10만대 판매를 돌파한 뒤 올해는 연간 판매량 14만대 돌파도 예상된다.

업체별로는 같은 기간 현대차 6만9876대로 전체 친환경차 판매의 54.5%를 차지했고, 이어 기아차가 5만5854대로 43.6%였다.

모델별로는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3만 2128대 판매돼 1위에 올랐다. 이어 기아차의 쏠렌

토 하이브리드도 최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인기에 힘입어 1만7728대가 판매돼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밖에 니로 하이브리드(1만5192대), K5 하이브리드(8951대), K7 하이브리드(7758대), 포터 일렉트릭(7623대), 코나 일렉트릭(7512대), 쏘나타 하이브리드(7346대) 등 순이었다.

수소전기차 넥소는 지난해 출시 2년 7개월 만에 국내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한 반면, 올해 전기차 판매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과 코나 일렉트릭은 전년보다 각각 22%, 38.1% 감소했고, 기아차도 니로 EV와 쏘울 EV가 각각 51.6%, 78.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기차 판매는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신차들이 출시될 경우 다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형 SUV vs 준대형 세단 올해 베스트셀링 차급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준대형 세단 간에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 들어 그랜저를 앞세운 준대형 세단의 판매가 늘어나며 한동안 앞서가던 중형 SUV의 판매량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9일 완성차 5개사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형 SUV의 누적 판매량은 16만 1524대, 준대형 세단은 16만534대로 집계됐다. 두 차급의 판매량 차이가 1000대도 나지 않는다.

10월까지 준대형 세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15만3907대)과 비교해 25.2% 증가한 반면, 중형 SUV는 전년 동기(12만8200대) 대비 4.9% 증가에 그쳤다.

현재 판매되는 준대형 세단은 그랜저와 K7 등 2개 차종이고, 중형 SUV는 싼타페, 넥소, 쏠렌토, 이쿼닉스, QM6 등 5개다.

이중 지난해 11월 6세대 그랜저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며 그랜저는 올해 10월까지 12만4736대의 판매량을 기록해 같은 기간 중형 SUV의 쌍두마차인 싼타페(4만7013대)와 쏠렌토(6만9883대)의 판매량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최근 4세대 쏠렌토와 싼타페 부분변경 모델 모두 가솔린 터보 모델을 추가해 라인업을 넓힌 상태다. /연합뉴스

열여섯분만 모십니다

마세라티 '로얄 에디션' 출시
전 세계 100대 한정 판매
마스터 케어 프로모션 진행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가 전 세계 100대 한정 생산되는 '로얄(Royale) 에디션'을 국내 공식 출시했다.

9일 마세라티에 따르면 '왕실'과 '훌륭한' 등의 뜻을 지닌 로얄 에디션은 1986년 마세라티가 3세대 쿼트로포르테 모델을 기반으로 선보였던 스페셜 에디션이다. 독특한 블루와 그린 색상의 외관, 기본형 모델과 차별화된 원목 소재의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마세라티는 설명했다.

당대 유명 인사 등 소수의 고객만을 위해 51대만

특별히 제작된 한정판으로, 마세라티의 열혈 팬으로 알려진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애정했던 모델로도 유명하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2020년 로얄 에디션은 1986년 로얄 에디션의 기존인 우아함을 재현함과 동시에 현대의 마세라티가 가진 섬세한 디자인과 예술적으로 융화된 계 특징이다. 외관은 이탈리아 자중해의 강인함과 여유로움이 녹아든 블루 로얄(Blu Royale)과 기품과 품격이 돋보이는 녹색 색조의 베르데 로얄(Verde Royale) 두 가지를 적용했다.

실내는 마세라티의 오랜 파트너인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에르메네 지노 제냐'(Ermenegildo Zegna)가 맡았다. 고품질 경량 나파 가죽 스트립을 교차 직조해 만든 '펠레테스타'(Pelletessuta) 가죽을 적용했고, 센터 콘솔 한가운데에 자리한 한정판 한정 배지로 로얄 에디션만의 품격을 더했다.

전 세계 100대 한정 판매되는 로얄 에디션은 국내에 16대가 배정돼 한정 판매된다. 모델별로는 쿼트로포르테 6대, 기블리 4대, 르반테 6대 등이다. 가격은 ▲쿼트로포르테 그란루쏘 로얄 에디션 1억

8480만원 ▲기블리 그란루쏘 로얄 에디션 1억 4120만원 ▲르반테 그란루쏘 로얄 에디션 1억 5850만원이다.

한편 마세라티는 마세라티 최초 구입 고객에게 엔진오일과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 등 총 10종의 소모품을 평생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마스터 케어 프로모션'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로얄 에디션과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세라티 광주전시장을 비롯한 전국 9개 전시장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021년형 도요타 시승 행사 내달 13일까지

도요타코리아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전국 24개 도요타 전시장에서 시승행사 '인조이 유어 힐링 드라이브'(Enjoy Your Healing Drive)를 실시한다.

이번 시승 행사에서는 2021년형 RAV4 하이브리드(HEV)를 비롯해 캠리 하이브리드(HEV), 프리우스 등 도요타의 대표 모델들을 직접 시승할 수 있다.

이달 15일까지 도요타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3시간 동안 무료시승할 수 있으며, 전시장 인근 지정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음료권도 제공된다.

이밖에 시승 후기 이벤트로 시승을 마친 뒤 'YO! TOYOTA!'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시승을 인증하고 차량상담을 진행할 경우 '친환경 반력식물 키우기 키트'를 증정한다. 시승 체험 후 차량을 구매할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네이처하이테크 텐트, 콜맨 아이스박스 등 캠핑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대한 도요타코리아 상무는 "이번 시승 이벤트와 함께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이진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저자 이진